

# 수출채산성, 2/4분기부터 급속악화

## 무역협회 457사 조사, 원자재 가격상승에 원화강세 · 유가상승 3중고

원화강세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국내 무역업계의 수출채산성이 2/4분기 이후 크게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.

한국무역협회가 최근 457개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한 수출전망 및 채산성 설문조사 결과, 조사대상의 64.3%가 2/4분기 이후 수출환경이 종전보다 나빠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곳은 19.3%,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곳은 16.4%에 불과했다.

수출환경 악화 이유는 원화절상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(45.6%),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(34.3%), 중국과의 경쟁심화(18.0%) 등이었다.

이에 따라 조사대상의 78.8%가 수출채산성도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했으며,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 곳은 12.7%, 좋아질 것이라는 곳은 8.5%에 그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.

채산성 악화의 주 원인도 원화절상(39.7%), 원자재가 상승(36.9%)으로 꼽았고 수출단가 인하(8.9%), 물류비 상승(7.5%), 인건비 상승(6.7%)도 적지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.

조사대상의 대부분인 98.2%가 최근 1년 안에 원자재 가격상승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, 10-30% 올랐다는 곳이 전체의 55.4%로 가장 많았고 30-50% 인상 21.0%, 50-100% 올랐다고 응답한 곳도 12.7%에 달했다.

반면, 수출기업의 72.0%가 원자재가격 인상분 중 20% 이하만 수출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10% 이하를 반영하는 곳이 42.1%, 인상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곳도 12.0%에 달했다.

또 대부분은 최근 1년 안에 수출운임 인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인상률은 10-30% 사이가 58.7%로 가장 많았다.

2/4분기 이후 수출자금 사정 악화를 예상하는 곳도 59.3%로 많은 무역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유는 원자재가 상승(49.5%), 수출·매출 부진(34.3%), 금융기관 대출억제(6.6%), 투자확대로 인한 자금수요 증가(3.7%) 순이었다.

무역업계는 최근의 수출환경 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▲품질경쟁력 강화(37.6%) ▲해외판로 확대(29.8%) ▲원가절감 등 가격경쟁력 강화(10.9%) ▲수출단가 인상(4.8%) 등을 들었으나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곳도 15.8%나 됐다.

무역협회 김재숙 무역진흥팀장은 “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지만 해외시장에서의 치열한 가격경쟁 때문에 수출가격을 올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원화강세와 유가상승까지 겹치면서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”고 지적했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3/02>